

여말선초 금속활자를 통해 본 證道歌字 字形의 특징

Characteristics of the Shape of Jeungdoga Type(證道歌字) in View of the Movable Metal Types During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s

손 계 영 (Son, Ke-yo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1 이체·이형자의 특이 용례 |
| 2. 여말선초 금속활자의 상이한 자형 | 3.2 갈고리획의 강조 용례 |
| 2.1 점획의 증감·변형 용례 | 3.3 특정 점획의 강조 및 변형 용례 |
| 2.2 篆隸에서 변형된 용례 | 4. 맺음말 |
| 3. 증도가자 자형의 특징 | <참고문헌> |

<초 록>

최근 새로이 발견된 금속활자가 『南明泉和尚頌證道歌』 번각본의 저본 활자임과 해당 활자가 고려시대의 것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학계에서는 해당 활자를 ‘證道歌字’라 명명하고 있다. 증도가자 활자의 字形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금속활자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 형태의 이체자 및 글자 點・劃의 특이 사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증도가자를 확인하고 감별할 수 있는 중요 기준이 될 수 있기에 증도가자 자형에 주목하였다. 증도가자 활자 가운데 13세기 주조된 것으로 밝혀진 등근흠형 활자 88자를 중심으로 여말선초 금속활자에서 동일한 글자를 뽑아 이들의 자형을 비교·분석하였다. 고려시대 금속활자로는 증도가자, 『직지심체요절』을 인쇄한 興德寺字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선초기의 금속활자로는 금속활자가 보급확대되기 이전에 개발·개량되었던 癸未字・庚子字・甲寅字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 5종의 금속활자의 88자를 비교하여 증도가자 자형의 고유한 특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로 발견된 금속활자가 번각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저본 활자임을 재삼 확인하였고, 제시한 증도가자 자형의 고유한 특징들은 차후 증도가자 인본을 감별하는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要語: 금속활자, 證道歌字, 興德寺字, 癸未字, 庚子字, 甲寅字, 南明泉和尚頌證道歌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조교수(sonkey@cu.ac.kr)

접수일: 2015년 9월 2일 최초심사일: 2015년 9월 6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20일

<ABSTRACT>

As recent studies on the newly discovered movable metal type officially announced that the type had been cast during the Goryeo period and used in the original version of the block-printed copy of *Nammyeongcheon hwasangsong jeungdoga* (南明泉和尚頌證道歌; Song of Enlightenment Recited by Ven. Nanming Faquan), it has been named as “Jeungdoga type” within the academic circle. The examination of the shape of Jeungdoga type disclosed the variant forms of characters as well as significant features of dots and strokes which are devoid of movable metal types in the Joseon period. Thus, this article claims that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important criteria to identify and distinguish Jeungdoga type. Among Jeungdoga type, the 88 grooved-form types were proved to be cast in the 13th century. Focusing on those types, this study selected the same characters from the five movable metal types created in the late Goryeo and the early Joseon periods and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features of the each character. The object to be examined here are the movable metal types cast during the Goryeo period, such as Jeungdoga type and Heungdeoksa type with which Jikji were printed and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such as Gyemi type, Gyeongja type and Gabin type. After the selection and comparison of the 88 characters from these 5 movable metal types, this study present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Jeungdoga type. Through this study, it was able to reconfirm the newly discovered movable metal type as the original type of the reprinted *Nammyeongcheon hwasangsong jeungdoga* and at the same time this study suggested the available identification criteria for the Jeungdoga type printed copies.

Key words: Movable Metal Types, Jeungdoga Type (證道歌字),
Heungdeoksa Type (興德寺字), Gyemi Type (癸未字),
Gyeongja Type (庚子字), Gabin Type (甲寅字),
Nammyeongcheon hwasangsong jeungdoga (南明泉和尚頌證道歌;
Song of Enlightenment Recited by Ven. Nanming Faquan)

1. 머리말

최근 새로이 발견된 금속활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해당 금속활자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¹⁾ 지난해 가을에는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 새로 발견된 금속활자가 고려시대 금속활자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²⁾ 해당 금속활자가 변각본 『南明泉和尚頌證道歌』(이하 『증도가』로 약칭함) 저본의 원활자임이 밝혀지면서 ‘證道歌字’라 명명하게 되었다.³⁾ 새로 발견된 활자는 활자의 뒷면 형태에 따라 등근흙

1) 2010년 신출 금속활자 실물이 언론과 학계에 공개된 이후 지난 5년간 상당량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권희, “증도가자의 발견과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연구,” 『서지학보』 36(2010).; 김성수, “증도가자의 진위 규명을 위한 조선시대 금속활자와의 주조 형태에 관한 비교 분석적 연구,” 『서지학보』 36(2010).; 남권희, “증도가자와 『동국이상국집』,” 『서지학연구』 48(2011).; 홍완, 박중현, 성기석, 박규준, “증도가자에 잔류된 먹의 탄소연대 분석,” 『고려 금속활자 조사연구』(청주고인쇄박물관, 2011).; 이승철, “고려 금속활자의 자체 연구,” 『고려 금속활자 조사연구』(청주고인쇄박물관, 2011).; 남권희, “한국 금속활자 연구의 제문제: 형태와 주조법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51(2012).; 김성수, “한국 금속활자인쇄술의 시원과 관련한 주자본 『남명송증도가』의 간행년도에 관한 연구,” 『서지학보』 39(2012).; 옥영정, “고려 금속활자 연구의 흐름과 새로운 변화,” 『서지학보』 39(2012).; 남권희, “고려 금속활자 증도가자의 주조법과 인쇄기술사적 분석,” 『서지학보』 39(2012).; 이완우, “신출 금속활자와 고려시대 서예사,” 『서지학보』 39(2012).; 유부현, “『청량담순종심요법문』과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비교 고찰,” 『서지학보』 39(2012).; 김성수, “고려시대 금속활자본의 특징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 97(2013).

2)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 사업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주하여 경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되었다.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 최종결과보고서』(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3) 해당 금속활자는 『증도가』를 인출한 활자로 알려지면서 ‘證道歌字’라 명명되었고, 이후 연구를 통해 『증도가』뿐만 아니라 『동국이상국집』의 인출 활자로도 확인되어 ‘증도가자’라는 명칭이 해당 활자를 통칭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興德寺字』와 같이 활자가 주조되었던 장소명이나 ‘癸未字’와 같이 주조되었던 시기(간지)를 활자의 명칭에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기에 ‘증도가자’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고려 금속활자’라는 통칭을 사용하였다(청주고인쇄박물관, 『고려 금속활자 조사연구』(청주고인쇄박물관, 2011), 9). 『증도가』 이외에 다양한 서책 인출에 사용되었으나 해당 활자가 『증도가』 인출에 사용된 활자임이 분명하기에 ‘증도가자’라는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고려 금속활자’라는 명칭이 고려시대 금속활자라는 개념의 통칭으로 해석되어 특정 활자를 지칭하기에 불분명한 용어라 생각되기에 본고에서는 ‘증도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형태(둥근홈형)와 네다리 형태(네다리형)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둥근홈 형태는 활자의 뒷면에 홈이 등글게 파여 있는 형태로 13세기에 주조되었고, 네다리 형태는 뒷면의 네 모서리가 다리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주조나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⁴⁾ 13세기에 주조된 것으로 밝혀진 둥근홈형 활자를 대상으로 활자 字形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금속활자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 형태의 이체자 및 글자 점획의 특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증도가자를 확인하고 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증도가자 하형에 주목하게 되었다.

증도가자 글자체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증도가자의 글씨와 이를 등재본으로 번각한 『증도가』 및 『동국이상국집』의 글씨를 비교한 연구이고,⁵⁾ 두 번째는 증도가자 글씨와 고려시대 금석문·사경·목판본의 글씨를 비교한 연구이다.⁶⁾ 전자의 경우에는 현존본 『증도가』 및 『동국이상국집』이 번각본임에도 불구하고 둥근홈형 활자의 字劃 방향과 刻刀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둥근홈형 활자가 번각본 이전의 『증도가』와 『동국이상국집』 인출 활자임을 밝힌 연구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증도가자 59자를 대상으로 10~12세기 石刻搨本, 13세기 寫經, 11~13세기 고려 대장경 목판본과 비교한 결과 1125년 석문과 1275~83년 사경 사이의 시기에 주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새로 발견된 활자가 고려시대 주조 금속활자임을 밝혔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필사본·석각탑본·목판본(번각본 포함)을 비교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본고에서는 비교대상을 금속활자본으로 삼아 증도가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립된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인출본(금

4) 청주고인쇄박물관, 『고려 금속활자 조사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11), 9, 245, 413.

5) 증도가자 글씨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이승철의 연구가 있으며 증도가자 글자의 특징을 정리하여 언급한 남권희의 연구가 있다. 이승철, “고려 금속활자의 자체 연구,” 『고려 금속활자 조사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11). ; 남권희, “증도가자의 발견과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연구,” 『서지학보』 36(2010). ; 남권희, “고려 금속활자 증도가자의 주조법과 인쇄 기술사적 분석,” 『서지학보』 39(2012).

6) 이완우, “신출 금속활자와 고려시대 서예사,” 『서지학보』 39(2012).

속활자본)에서 증도가자를 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증도가자 자형의 고유한 특징이 밝혀진다면 증도가자 판단의 준거가 될 뿐만 아니라, 『증도가』·『동국이상국집』 등이 증도가자 번각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앞으로 발견 가능한 번각본의 저본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서예사적·서지학적 측면에서 보면 13세기의 금속활자 자형이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활자 자형 변화에 대한 시초적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려 금속활자 조사연구』의 도판에 수록된 등근흙형 활자 88자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비교대상 금속활자로는 고려·조선시대에 주조된 모든 금속활자를 대상으로 삼으면 금속활자 자형의 전체적 변화 흐름을 읽을 수 있겠지만 30종을 초과하는 조선시대 금속활자를 모두 비교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조선초기 이전의 금속활자로 제한하여 여말선초 금속활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여말선초 금속활자 중 고려시대의 것으로는 증도가자 발견 이전까지 최고의 금속활자이자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하 『지지심체요절』로 약칭함) 인출 활자인 興德寺字가 유일하며, 이는 금속활자본 가운데 증도가자 제작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글씨이기에 중요한 비교대상으로 볼 수 있다. 조선초기의 금속활자로는 기존 선행연구의 시기구분을 기준으로 3종의 금속활자를 대상으로 삼았다.⁷⁾ 선행연구에 의하면 금속활자를 개발·개량·보급확대의 3시기로 구분하였는데, 금속활자가 보급확대 되기 이전에 개발·개량되는 역할을 하였던 癸未字·庚子字·甲寅字를 조선초기 금속활자의 대상에 포함시켜 비교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88자의 등근흙형 활자를 기준으로 흥덕사자·계미자·경자자·갑인자 4종과의 비교를 시도할 것이고, 이를 통해 증도가자 자형의 고유한 특징을 찾는 동시에 증도가자를 감별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7) 옥영정, “직지와 금속활자의 아름다움 - 조선전기 금속활자를 통하여 살펴본 선조의 미의식-,” 『서지학연구』 28(2004).

2. 여말선초 금속활자의 상이한 자형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금속활자는 흥덕사자·계미자·경자자·갑인자 4종이며, 이들의 활자 실물이 전무한 관계로 활자로 인출한 인출본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흥덕사자의 경우에는 『직지심체요절』(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계미자의 경우에는 『十七史纂古今通要』卷16·17(규장각한국학연구원·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을 대상으로 삼았다. 경자자와 갑인자의 경우에는 『資治通鑑綱目』卷13·17·19·34(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및 『分類補註李太白詩』卷12·13·16·17·22·23·24·25(국립중앙도서관 소장)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증도가자 활자의 자형은 『고려 금속활자 조사연구』의 도판을 사용하였으며, 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좌우 반전한 형태를 추가하였다. 또한 활자 자형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증도가』 번각본의 글자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번각본의 글자는 증도가자 활자 자형과의 유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88자의 증도가자(원형·좌우반전)를 기준으로 『증도가』 번각본, 흥덕사자 인본, 계미자 인본, 경자자 인본, 갑인자 인본에서 동일한 글자를 추출하여 비교하였고 [부록]의 표로 정리하였다([부록] 참조).

[부록]의 표와 같이 『증도가』 번각본과 여말선초 금속활자본 4종(흥덕사자, 계미자, 경자자, 갑인자)에서 88자를 비교한 결과 상이한 자형의 동음동의자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들 상이한 자형은 일반적으로 異體字 또는 異形字에 포함된다. 이체자와 이형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체자는 개인적 필기 습관이나 초기 글자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존재하던 자형에 의해 생겨난 글자들 혹은 필기도구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글자를 의미하며, 이형자는 자형이 다르면서 正字와 동음동의를 가지는 글자로 부수나 다른 구성요소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된 경우를 말한다.⁸⁾

8) 「이체자 정의와 분류」, 한국고전번역원 이체자정보DB
(http://db.itkc.or.kr/DCH/DCH_POPHELPS.jsp).

 정자	 이체자	 이형자
--	---	---

제2장에서는 여말선초 금속활자에서 확인되는 이체자 및 이형자를 소개하고자 하며, 특정 금속활자에서만 발견되는 자형을 밝힘으로써 금속활자본의 종류를 판별하는 기준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점획이 증감되거나 변형된 자형 및篆隸字에서 변형된 자형으로 크게 구분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2.1 점획의 증감·변형 용례

정자를 기준으로 점 또는 획의 일부가 생략·추가되거나 변형된 용례이다. 자세히 비교하지 않으면 상이한 자형인지 식별이 어려울 만큼 점 하나, 획 하나의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2.1.1 점획의 생략 또는 간소화 용례

正字를 기준으로 점 또는 획의 일부가 생략된 용례로는 ‘廣’자, ‘善’자, ‘爲’자, ‘徧’자, ‘源’자, ‘願’자 등이 있다(<그림 1-1> 참조). ‘廣’자의 경우 ‘广’ 아래 ‘黃’의 획 하나를 생략하여 ‘黃’으로 표기한 자형이 사용되었다. 즉 ‘广’ 아래 상단을 ‘廿’로 표기한 자형이 정자인 반면, ‘卅’로 표기한 경우 이체자에 해당되며, 후자의 자형은 흥덕사자·경자자·갑인자 3종의 인본에서 발견된다.

‘善’자의 경우 대부분 정자의 자형에서 벗어나지 않은 형태이지만, 『직지심체요절』의 흥덕사자에서는 ‘口’ 위의 점 2개가 생략된 형태이다. 즉 증도가자·계미자·경자자·갑인자에서는 정자를 사용한 반면, 흥덕사자에서는 획이 생략된 ‘善’의 자형을 사용하였다. ‘爲’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정자를 사용하였으나, 예외적으로 갑인자에서 이체자를 사용하였는데, ‘爲’의 윗부분인 ‘丩’를 2개의 점으로 생략한 자형을 사용하였다. 윗부분이 2개의 점으로 간소화된 ‘爲’자는 갑인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글자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점·획이 생략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로는 ‘徧’자와 ‘源’자가 있다. ‘徧’자의 오른쪽 ‘戶’의 윗점을 생략한 ‘戶’를 사용한 ‘徧’

자형과 ‘源’자의 ‘冫’와 ‘日’ 사이 획을 생략한 ‘源’ 자형이다. 正字와 큰 차이는 없지만 점 하나 또는 획 하나가 생략된 이체자이다. ‘徧’과 ‘源’의 용례도 갑인자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점획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용례로 ‘願’자를 들 수 있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願’자는 두 가지 형태로 확인된다. 하나는 왼쪽의 ‘原’에서 ‘冫’와 ‘日’ 사이 획이 생략된 ‘願’의 자형이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願’자의 왼쪽 ‘原’을 변형한 ‘願’의 형태이다. 전자의 용례는 갑인자에서만 사용되었고, 후자의 용례는 『직지심체요절』의 홍덕사자에서 사용되었다.

이상의 용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획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자형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홍덕사자 또는 갑인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2.1.2 점획의 추가 용례

점획이 추가된 대표적인 용례로는 ‘切’자와 ‘嚴’자를 살펴볼 수 있다. ‘切’자의 경우 증도가자·홍덕사자·갑인자에서 정자로 사용하였으나 홍덕사자·계미자·경자자에서 왼쪽의 ‘七’이 ‘土’로 변형된 ‘切’의 자형을 사용하였다. 홍덕사자에서는 전자의 정자와 후자의 이체자인 두 가지 형태의 자형이 모두 발견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嚴’자의 정자 형태는 상단의 2개의 ‘口’ 아래에 ‘冫’를 사용한 자형으로, 홍덕사자·계미자·경자자·갑인자 등 대부분의 금속활자에서 정자의 자형을 사용하였으나 유일하게 증도가자에서는 2개의 ‘口’ 아래에 점이 추가된 ‘嚴’ 자형을 사용하였다. ‘冫’가 들어간 자형의 사용은 증도가자 활자뿐만 아니라 증도가 번각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번각본의 저본이 증도가자 활자본임을 말해준다.

2.1.3 점획의 변형 용례

점획이 생략되거나 추가된 형태는 아니지만 일부 획이 변형된 용례가 발견된

다. 대표적인 사례가 ‘淸’자, ‘於’자, ‘衆’자이다. ‘淸’자의 경우에는 왼쪽 아래의 ‘冂’이 정자 형태이지만, 정자를 사용한 사례는 홍덕사자에서만 발견된다. 이외의 증도가자·계미자·경자자·갑인자 등 대부분의 금속활자에서는 왼쪽 아래의 ‘冂’을 ‘月’로 변형한 자형을 사용하였다. 또 다른 용례로 ‘於’자를 살펴보면, 왼쪽에 ‘方’이 사용된 자형이 정자인데 증도가자·홍덕사자·계미자·경자자 등 대부분의 활자에서 정자를 사용한 반면, 갑인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왼쪽의 ‘方’을 ‘才’의 형태로 변형한 ‘𠂔’의 자형을 사용하였다. 갑인자의 ‘𠂔’자는 ‘為’자와 함께 갑인자의 특징이 되는 대표적인 글자로 꼽을 수 있다.

마지막 용례로 ‘衆’자를 살펴보면 하단의 ‘豕’ 형태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정자의 형태는 상단의 ‘血’ 아래에 점을 찍고 왼쪽으로 빠치는 세로획을 긋고 세로획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2개의 획과 오른쪽으로 2개의 획이 있는 ‘衆’의 자형이다. 이러한 자형은 증도가자 활자와 번각본에서만 나타난다. ‘衆’자의 변형된 형태로는 ‘血’ 하단의 중앙에 점을 찍지 않고 곧장 세로획을 긋고 왼쪽에 2개의 획과 오른쪽에 3개의 획을 넣은 ‘衆’의 자형이 있으며, 또 다른 형태로는 ‘血’ 아래에 점을 찍지 않고 오른쪽으로 빠져 올리는 세로획을 긋고 왼쪽으로 2개의 획과 오른쪽으로 3개의 획을 넣은 ‘衆’의 자형이 발견된다. 전자의 형태는 『직지심체요절』의 홍덕사자에서 사용되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계미자·경자자·갑인자 등의 활자본에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衆’자 역시 고려말과 조선초의 활자를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가 되며, 동시에 증도가자를 구분하는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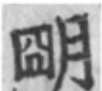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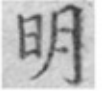
2.2 篆隸에서 변형된 용례

점획이 생략·추가·변형된 이체자와 달리 篆隸의 자형에서 변형된 용례를 살펴볼 수 있다. 여말선초 금속활자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형으로는 ‘珍’자, ‘所’자, ‘爾’자, ‘明’자가 있으며, 그 사례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점획의 증감·변형 용례

<그림 1-1> 점획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용례						
	증도가 활자 (13세기)	증도가 번각본 (1239)	홍덕사자본 (1377)	계미자본 (1403)	경자자본 (1420)	갑인자본 (1434)
廣 廣 廣						
善 善 善						
爲 爲 爲						
徧 徧 徧						
源 源 源						
願 願 願						

<그림 1-2> 점획이 추가된 용례						
	증도가 활자 (13세기)	증도가 번각본 (1239)	홍덕사자본 (1377)	계미자본 (1403)	경자자본 (1420)	갑인자본 (1434)
切 切 切			 			
嚴 嚴 嚴			 			
<그림 1-3> 점획이 변형된 용례						
	증도가 활자 (13세기)	증도가 번각본 (1239)	홍덕사자본 (1377)	계미자본 (1403)	경자자본 (1420)	갑인자본 (1434)
清 清 清						
於 於 於						
衆 衆 衆						

	증도가 활자 (13세기)	증도가 번각본 (1239)	홍덕사자본 (1377)	계미자본 (1403)	경자자본 (1420)	갑인자본 (1434)
珍 珍 珍						
所 所 所						
尔 爾 爾						
明 明 明						

<그림 2> 篆隸의 자형에서 변형된 용례

‘珍’자의 정자 형태는 조선초기 금속활자인 계미자·경자자·갑인자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珍’의 오른쪽 ‘彡’이 ‘尔’로 변형된 ‘珍’ 자형은 隸字에서 변형된 형태인데, 고려 금속활자인 증도가자와 홍덕사자의 사례에서 발견된다. ‘所’자의 경우에는 증도가자·홍덕사자·계미자·경자자 등 대부분의 금속활자에서 정자의 사용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홍덕사자 중 일부의 글자 및 갑인자의 경우에는 ‘所’의 이형자인 ‘𡵓’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태도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자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형자의 字源이 전예에서 변형된 또 다른 사례로는 ‘爾’자를 들 수 있다. 여말선초 금속활자에서 ‘爾’자와 다른 형태의 자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爾’자의 상단을 ‘ㄴ’로 변형한 자형이고 또 다른 자형은 획수를 간략하게 변형한 ‘尔’ 형태이다. 전자의 경우는 갑인자에서 확인되는 자형의 형태이고, 후자의 경우는 증도가자 활자 실물과 『직지심체요절』의 홍덕사자에서 확인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증도가자 활자와 증도가 번각본에서의 자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부록]의 표와 같이 증도가자의 둥근홈형 활자 88자와 증도가 번각본의 자형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자형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예외적으로 ‘爾’자의 경우 활자와 번각본의 자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활자가 ‘尔’자와 ‘爾’자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尔’자만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篆隸의 영향으로 변형된 용례로 ‘明’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明’자의 상이한 자형은 두 가지 형태로 왼쪽의 ‘日’이 ‘𠂔’ 또는 ‘目’으로 변형된 경우로 구분된다. 정자인 ‘明’자는 홍덕사자·계미자·경자자 3종에서 확인되는 반면, ‘𠂔’자의 사용은 증도가자 활자와 증도가 번각본에서 확인되고, 좌측에 ‘目’을 사용한 ‘明’의 자형은 유일하게 갑인자본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말선초 금속활자 자형을 분석·비교한 결과 단 순하게 정확이 증감·변형된 용례도 있지만, 자형의 형태가 篆字 또는 隸字의 영향을 받아 글자의 구성요소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형된 용례도 살펴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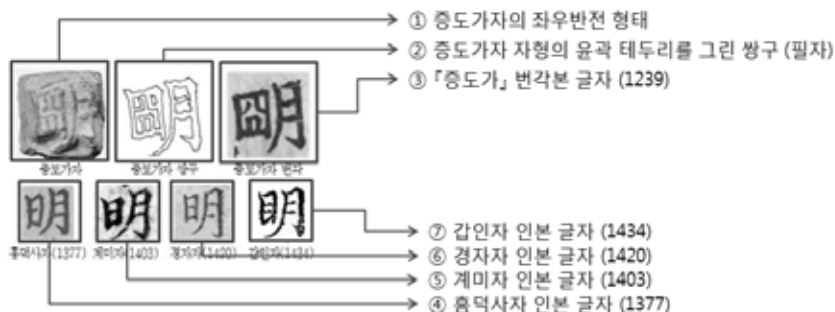
正字	珍	所	爾		明	
異形字	玼	𠂔	爾	尔	𠂔	明
隸書						
	漢代 孟旋殘碑	漢代 燕平石經	漢代 燕平石經	漢代 校官碑	漢代 乙瑛碑	漢代 尹宙碑
篆書						
	說文篆文	魏代 正始石經	說文篆文	說文篆文	說文篆文	

<그림 3> 이형·이체자의 字源인 篆隸

3. 증도가자 자형의 특징

88자의 증도가자 활자, 『증도가』 번각본, 홍덕사자 인본, 계미자 인본, 경자자 인본, 갑인자 인본에서 동일한 글자를 추출하여 비교함으로써 여말선초 금속활자 가운데 증도가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형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록]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말선초 금속활자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증도가자 자형의 독립된 특징으로 1) 이체·이형자의 특이 용례, 2) 갈고리획(丿)의 강조 용례, 3) 특정 점·획의 강조 및 변형 용례로 구분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해당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① 증도가자의 좌우반전 형태, ② 자형의 형태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증도가자 글자의 윤곽 테두리를 그린 雙鉤 형태, ③ 『증도가』 번각본의 글자, ④ 홍덕사자 인본의 글자, ⑤ 계미자 인본의 글자, ⑥ 경자자 인본의 글자, ⑦ 갑인자 인본의 글자를 하나로 엮어 비교·제시하고자 한다.

여말선초 금속활자를 통해 본 證道歌字 字形의 특징



3.1 이체 · 이형자의 특이 용례

앞서 서술한 상이한 형태의 이체 · 이형자를 증도가자의 특징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1 異形字의 특이 용례

증도가자의 대표적인 이형자 사례는 ‘明’자의 이형자인 ‘𡩿’자이다. 이는 고려 시대 이전 석문 또는 고려대장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형이지만 금속활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중요한 이형자이며, 번각본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이 글자는 증도가자를 감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증도가자 인출본을 등재본으로 한 번각본의 감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글자이다.

또 다른 이형자의 사례로는 ‘珍’의 이형자인 ‘玼’자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증도가』 번각본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번각되어 사용되었고, 홍덕사자에서도 이형자의 형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계미자 · 경자자 · 갑인자에서는 正字인 ‘珍’자를 사용하였다.



<그림 4> 이형자를 사용한 경우: 明자·珍자

3.1.2 異體字의 특이 용례

증도가자에서 이체자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善’자이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덕사자에서는 ‘口’ 바로 위의 두 개 점이 생략된 반면, 증도가자·계미자·경자자에서는 사용되었다. 때문에 홍덕사자를 제외하면 증도가자 ‘善’자가 계미자·경자자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증도가자 ‘善’자의 특징은 위쪽 두 개의 점이 ‘V’ 방향이 아니라 ‘^’ 방향이라는 점이다.⁹⁾ 증도가자의 ‘善’자의 형태는 기타 금속활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자형이며, ‘明’과 함께 증도가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글자이다.

또 다른 이체자로는 ‘嚴’자를 꼽을 수 있는데, 正字에서는 두 개의 ‘口’ 아래에 ‘广’을 사용하지만, 증도가자의 글자에서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广’ 형태의 이체자를 사용하였다. ‘广’ 형태는 홍덕사자·계미자·경자자·갑인자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증도가자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广’ 형태의 이체자는 『증도가』 번각본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번각본이 증도가자 인출본을 저본으로 삼은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9) 증도가자 등근흡형에는 ‘善’자 활자가 3점이 있는데, 모두 위쪽 두 개의 점이 ^방향이다.



<그림 5> 이체자를 사용한 경우 : 善자·嚴자

3.1.3 正字가 강조된 용례

正字이기는 하지만 이체자 사용이 일반적인 경우도 있다. 홍덕사자·계미자·경자자 등에서 모두 동일한 이체자를 사용하나 증도가자에서 드물게 정자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글자는 ‘切’자이다. 홍덕사자·계미자·경자자에서는 ‘土’와 ‘刀’가 합쳐진 ‘切’ 형태의 이체자를 사용한 반면, 증도가자에서는 정자인 ‘七’과 ‘刀’가 합쳐진 ‘切’자를 사용하였고 이는 번각본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 갑인자에서는 증도가자와 유사하게 ‘七’과 ‘刀’가 합쳐진 ‘切’자의 형태이지만, ‘七’의 획이 날카롭게 꺾여 ‘土’에 가까운 ‘七’인 반면 증도가자에서는 상당히 완만하게 꺾인 형태를 보인다. 홍덕사자·계미자·경자자에서 나타나는 ‘切’ 형태가 조선 중후기 금속활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증도가자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인지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衆’자를 들 수 있는데, 증도가자에서는 ‘血’ 아래에 점을 찍고 왼쪽으로 빼치면서 丿 획을 그은 반면, 홍덕사자·계미자·경자자·갑인자의 경우에는 ‘血’ 아래에 바로 점을 찍지 않고 곧장 세로획을 그었으며, 특히 계미자·경자자·갑인자 자형에서는 ‘血’ 아래의 세로획을 오른쪽으로 빼쳐 올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점을 찍고 세로획을 왼쪽으로 빼친 경우는 증도가자에서만 확인되며 이러한 형태는 『증도가』 번각본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6> 이체자 대신 正字가 강조된 경우: 切자·衆자

3.2 갈고리획의 강조 용례

증도가자 활자체의 첫 번째 특징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도가자에서만 확인되는 대표적인 이체·이형자의 존재를 꼽을 수 있고, 증도가자에서만 나타나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으로는 세로획을 갈고리(丿) 형태로 강조한 용례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2.1 亻·彳의 끝부분을 갈고리획으로 처리

갈고리획으로 처리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彳’ 부수자이거나 ‘亻’ 부수자의 경우로, 세로획의 끝부분을 왼쪽으로 빼쳐 갈고리획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彳’ 부수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徒’자·‘得’자·‘行’자이고, ‘亻’ 부수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佛’자 등으로 갈고리획의 용례는 <그림 7>과 같다. 亻·彳 끝부분을 갈고리획으로 처리한 용례는 홍덕사자·계미자·경자자·갑인자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증도가』 변각본에서는 일부 사례(‘得’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갈고리획으로 처리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여말선초 금속활자를 통해 본 證道歌字 字形의 특징



<그림 7> 1·2의 끝부분을 갈고리로 처리한 용례: 徒자·得자·行자·佛자

3.2.2 几 왼쪽획을 갈고리로 처리

‘明’자, ‘善’자에 이어 중도가자의 주요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글자는 ‘風’자이다. 중도가자의 ‘風’ 자에서는 타 금속활자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几 왼쪽획을 갈고리로 상당히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風’자 오른쪽 획의 빠짐 용례는 어떤 유형에서나 볼 수 있지만 양쪽이 모두 바깥 방향으로 빠치는 자형은 중도가자만의 특징이며, 이는 변각본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8> 几 왼쪽획을 갈고리로 강조한 용례: 風자

3.2.3 세로획의 끝부분을 갈고리로 처리

이외에도 증도가자에서는 세로획을 갈고리 형태로 강조하였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中’자, ‘下’자, ‘常’자, ‘在’자의 세로획을 갈고리로 처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활자의 자형을 자세히 보면 갈고리획이 상당히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기타 금속활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증도가자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번각본 글자에서도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대체로 갈고리로 처리한 용례가 확인된다.



<그림 9> 세로획의 끝부분을 갈고리로 처리한 용례: 中자·下자·常자·在자

3.3 특정 점획의 강조 및 변형 용례

여말선초 금속활자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증도가자의 고유한 특징으로 세 번째는 특정 점획이 강조되거나 변형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厂的 가로획과 세로획의 사이가 분리되는 용례, 두 번째는 戶의 점·획 사이가 분리되는

용례, 세 번째는 心의 두 점 사이가 연결되는 현상 및 以의 점과 획이 붙지 않고 독립되는 용례, 네 번째는 彡의 점들이 서로 연결성이 두드러진 용례, 마지막으로 丿과 ㄴ의 머리 부분이 강조되는 용례 등이다. 이를 5가지 용례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3.1 厂의 획 사이의 분리

증도가자에서 보이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厂’ 또는 ‘广’의 세로획과 가로획이 분리되어 일정한 공간을 두고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願’자와 ‘源’자에서는 ‘厂’의 획 사이가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嚴’자와 ‘廣’자에서는 ‘广’의 세로획과 가로획이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이 『증도가』 번각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증도가자와 번각본의 유사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홍덕사자·계미자·경자자·갑인자 등 어느 금속활자에서도 厂·广 획 사이가 분리되는 용례가 없다.



<그림 10> 厂의 획 사이가 분리되는 용례: 願자·源자·嚴자·廣자

3.3.2 戶의 점획 사이의 분리

증도가자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戶의 윗점이 획에서 분리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증도가자에서 戶가 포함되어 있는 글자는 ‘所’자와 ‘徧’자뿐이지만 두 자만으로도 윗점이 분리되는 특징이 두드러지며 윗점이 거의 ‘一’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특징이 여말선초 금속활자에서도 일부 확인되는데, 계미자와 경자자 ‘所’자의 경우 증도가자 형태로 윗점이 분리된 사례가 있으나 <그림 11>에서 보듯이 윗점이 아래획과 붙어있는 자형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徧’자의 경우에 홍덕사자·계미자·경자자에서는 윗점이 모두 아래획과 연결된 형태이고, 갑인자에서는 윗점을 생략한 형태이기에 戶의 점획 분리는 증도가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림 11> 戶의 점획 사이가 분리되는 용례: 所자·徧자

3.3.3 心·以의 점 사이의 연결 및 점획의 분리

글자 가운데 흔히 사용되는 ‘心’자와 ‘以’자에서도 증도가자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心’자의 경우에는 홍덕사자·계미자·경자자·갑인자에서 두 점이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반면, 증도가자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붙어있는 특징이 있다. ‘以’자의 경우에는 기타 금속활자에서 왼쪽의 두 획과 가운데 점이 연결되어 있는 반면, 증도가자에서는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이 획으로부터 분리·독

여말선초 금속활자를 통해 본 證道歌字 字形의 특징

립되어 있다. 이처럼 사용 빈도가 높은 글자에서도 증도가자만의 고유한 특징이 발견된다.



<그림 12> 心の 점 사이 연결 및 以의 점획의 분리 용례

3.3.4 ㄷ의 점 사이의 연결성

ㄷ 부수자의 경우 ㄷ의 점획이 서로 연결되는 듯한 형태를 보이는데,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源’자와 ‘淸’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ㄷ의 점획 가운데 위쪽 두 점에서 연결성이 두드러지며, 조금의 변형이 있긴 하지만 번각본에서도 증도가자의 특징이 잘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ㄷ의 점 사이 연결성이 두드러진 용례: 源자·淸자

3.3.5 丿 · ㄴ의 머리 부분 강조

증도가자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글자는 ‘不’자이다.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도가자 ‘不’자는 가운데 X자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흥덕사자·계미자·경자자·갑인자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며, 이는 번각본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은 아래로 떨어지는 세로획의 머리 부분을 안쪽 깊숙이 들어 시작하였기에 X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로획(丨 · 丿) 또는 ㄴ의 머리 부분을 강조한 다른 사례로 ‘爲’자를 들 수 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爲’자의 ㄴ획이 위쪽의 세 점 사이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번각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면, 기타 금속활자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징이다. 이와 같이 ‘不’, ‘爲’자의 세로획 머리 부분이 강조되는 현상은 증도가자로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이 된다.



<그림 14> 丿 · ㄴ의 머리 부분이 강조된 용례: 不자 · 爲자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증도가자 글자체에서 발견되는 특이 형태의 이체자 및 글자 점획의 변형 등에 주목하여 증도가자와 여말선초 금속활자 4종을 비교·분석하여 증도가자에서 확인된 고유한 특징을 도출하여 이를 증도가자 감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근흡형 활자 88자를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여말선초

금속활자로는 흥덕사자·계미자·경자자·갑인자 4종과 비교하였다.

금속활자 자형과의 비교 결과, 증도가자에서만 나타나는 독립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특징으로는 특이 이체·이형자의 사용이다. 예를 들면 ‘明’자와 ‘珍’자의 이형자인 ‘𪛗’자와 ‘𪛖’자를 사용한다는 점, 윗점의 형태가 ‘^’ 방향인 ‘善’자의 이체자 및 두 개의 ‘口’ 아래에 ‘广’을 사용한 ‘嚴’자의 이체자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비교대상 금속활자 4종에서는 모두 동일한 이체자를 사용하는 반면 증도가자에서만 정자를 사용하는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즉, 여말선초 금속활자에서는 ‘切’과 같은 이체자를 사용하는 반면, 증도가자에서는 ‘切’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였다.

증도가자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세로획을 갈고리(丿) 형태로 강조한 용례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丨 과 亅의 세로획 끝부분을 왼쪽으로 빼쳐 갈고리획으로 처리하였는데, 대표적인 글자가 ‘徒’자·‘得’자·‘行’자·‘佛’자 등이다. 또한 几 왼쪽획을 갈고리로 처리한 ‘風’자는 ‘明’자, ‘善’자와 함께 증도가자의 주요근거가 되는 대표 글자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특이한 자형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中’자, ‘下’자, ‘常’자, ‘在’자 등의 세로획 끝부분을 갈고리로 처리한 용례 역시 증도가자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증도가자의 세 번째 중요 특징으로는 특정 점획이 강조되거나 변형되는 용례인데, 厂의 가로획과 세로획의 사이가 분리되는 현상이 ‘願’자, ‘源’자, ‘嚴’자 등에서 나타난다. 또한 ‘源’자, ‘淸’자 등에서 冫의 점들이 서로 연결성이 두드러진 용례를 보이며 특히 冫 점획 중 위쪽 두 점 사이의 연결성이 다른 활자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戶의 점획 사이가 분리되는 용례로 ‘所’자와 ‘徧’자에서 확인되었고, 이외에도 ‘心’자의 두 점 사이가 연결되는 특징, ‘以’자의 점과 획이 따로 떨어져 독립되는 특징, ‘不’자의 가운데 X자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징, ‘爲’자의 丿 머리 부분이 강조되어 위쪽 세 점 사이까지 올라오는 특징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과 특징들, 그리고 특정한 몇몇 글자의 예시는 차후 증도가자 인본을 감별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홍덕사자본).
- 『十七史纂古今通要』 卷16·17(규장각한국학연구원·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계미자본).
- 『資治通鑑綱目』 卷13·17·19·34(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경자자본).
- 『分類補註李太白詩』 卷12·13·16·17·22·23·24·25(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초주갑인자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증도가자 기초학술조사 연구 최종결과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 청주고인쇄박물관. 『고려 금속활자 조사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11.
- 김성수. “고려시대 금속활자본의 특징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 97(2013. 4). 39-65.
- 김성수. “증도가자의 진위 규명을 위한 조선시대 금속활자와의 주조 형태에 관한 비교 분석적 연구.” 『서지학보』 36호(2010. 12). 85-117.
- 김성수. “한국 금속활자인쇄술의 시원과 관련한 주자본 『남명송증도가』의 간행 년도에 관한 연구.” 『서지학보』 39호(2012. 9). 273-301.
- 남권희. “고려 금속활자 증도가자의 주조법과 인쇄기술사적 분석.” 『서지학보』 39호(2012. 9). 185-228.
- 남권희. “증도가자와 『동국이상국집』.” 『서지학연구』 48집(2011. 6). 191-227.
- 남권희. “증도가자의 발견과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연구.” 『서지학보』 36호(2010. 12). 5-84.
- 남권희. “한국 금속활자 연구의 제문제: 형태와 주조법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51집(2012. 6). 55-96.
- 옥영정. “고려 금속활자 연구의 흐름과 새로운 변화.” 『서지학보』 39호(2012. 6).

149-184.

옥영정. “직지와 금속활자의 아름다움 - 조선전기 금속활자를 통하여 살펴본 선조의 미의식 -.” 『서지학연구』 28집(2004. 9). 137-169.

유부현. “『청량답순종심요법문』과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비교 고찰.” 『서지학보』 39호(2012. 6). 345-368.

이승철. “고려 금속활자의 자체 연구.” 『고려 금속활자 조사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11.

이완우. “신출 금속활자와 고려시대 서예사.” 『서지학보』 39호(2012. 6). 229-272.

홍완, 박중현, 성기석, 박규준. “증도가자에 잔류된 먹의 탄소연대 분석.” 『고려 금속활자 조사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11.

『이체자 정의와 분류』, 한국고전번역원 이체자정보DB,

<http://db.itkc.or.kr/DCH/DCH_POPHELPS.jsp>.

[부록] 증도가자와 여말선초 금속활자 자형 비교

해당 한자	證道歌字 (13세기)	『證道歌』翻刻本 (1239)	興德寺字 (1377)	癸未字 (1403)	庚子字 (1420)	甲寅字 (1434)
巨						
界						
光						
廣						
眷						
歸						
那						
斷						
大						
徒						
得						
等						
樂						

여말선초 금속활자를 통해 본 證道歌字 字形의 특징

해당 한자	證道歌字 (13세기)		證道歌 續林 (1239)	興德寺字 (1377)	癸未字 (1403)	庚子字 (1420)	甲寅字 (1434)
令							
明							
無							
無							
般							
般							
方							
法							
法							
普							
菩							
福							
不							

해당 한자	證道歌字 (13세기)		『證道歌』藏經本 (1239)	興德寺字 (1377)	癸未字 (1403)	庚子字 (1420)	甲寅字 (1434)
不							
佛							
佛							
悲							
捨							
薩							
三							
上							
常							
常							
生							
惜							
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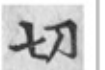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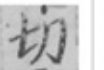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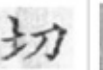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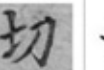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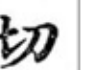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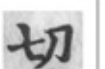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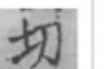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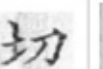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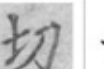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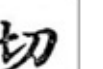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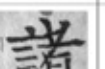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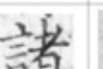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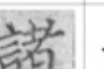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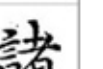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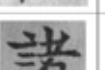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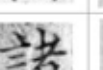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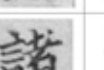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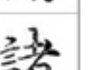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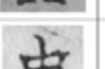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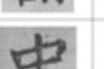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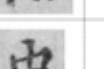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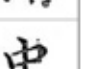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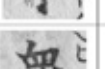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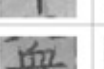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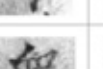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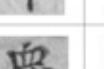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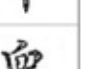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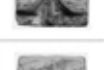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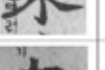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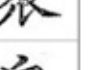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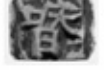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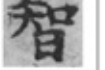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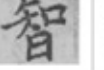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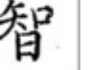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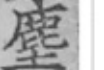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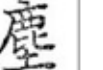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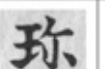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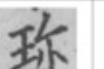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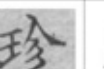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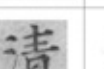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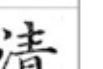
여말선초 금속활자를 통해 본 證道歌字 字形의 특징

해당 한자	證道歌字 (13세기)		『證道歌』 翻刻本 (1239)	興德寺字 (1377)	癸未字 (1403)	庚子字 (1420)	甲寅字 (1434)
善							
善							
所							
所							
所							
受							
勝							
時							
時							
臣							
心							
心							
心							

해당 한자	證道歌字 (13세기)		『證道歌』 刻本 (1239)	興德寺字 (1377)	癸未字 (1403)	庚子字 (1420)	甲寅字 (1434)
我							
安							
揚							
於							
嚴							
力							
五							
圓							
源							
願							
月							
爲							
爲							

여말선초 금속활자를 통해 본 證道歌字 字形의 특징

해당 한자	證道歌字 (13세기)		『證道歌』 翻刻本 (1239)	興德寺字 (1377)	癸未字 (1403)	庚子字 (1420)	甲寅字 (1434)
以							
尔							
仁							
人							
人							
日							
一							
子							
慈							
者							
自							
在							
材							

해당 한자	證道歌字 (13세기)		『證道歌』藏經本 (1239)	興德寺字 (1377)	癸未字 (1403)	庚子字 (1420)	甲寅字 (1434)
切							
切							
諸							
諸							
中							
衆							
衆							
證							
智							
塵							
珍							
清							
則							

여말선초 금속활자를 통해 본 證道歌字 字形의 특징

해당 한자	證道歌字 (13세기)		證道歌 翻刻本 (1239)	興德寺字 (1377)	癸未字 (1403)	庚子字 (1420)	甲寅字 (1434)
脫							
筒							
徧							
平							
風							
下							
行							
現							

